

발굴 소설,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 연구*

황태목**

|| 차례 ||

- I. 서론
- II. 『상해임시정부』의 서지 사항
- III. 이호철의 역사소설과 『상해임시정부』
- IV. 『상해임시정부』에 드러난 작가의식
- V. 결론

【 】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는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대한신문』에 연재 발표된 장편으로, 상해 시대 임시 정부 요인의 활동과 분열상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에는 초기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문제로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함께 식민지 역사 청산 문제와 분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서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김구와 안창호를 초점으로 한 역사적 인물의 독립 운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차철준으로 대표되는 기층 민중의 독립 운동사이다. 서술과정에 투입된 작가의식을 통해 민족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재현과 민중의 역사 재현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 소설이 공적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에선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을 동원해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며 총체적인 조망으로서 비판적인 담론을 펼치는 반면에 역사 기록을 넘어서는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570)

**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상상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에선 공적인 역사에 간혀 있던 일반 민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이호철, 발굴소설, 상해임시정부, 역사소설, 식민지 역사 재현, 민중의 역사 재현

I. 서론

본고는 1955년 『탈향』으로 데뷔한 이래 현재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호철의 발굴 소설에 관한 일련의 작업 중 두 번째 연구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이다. 『상해임시정부』는 1967년 12월 1일부터 1968년 8월 14일까지 총 219회에 걸쳐 『대한일보』에 연재 발표된 소설로, 지금까지 이호철의 연보에서 누락되었던 작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상해임시정부』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데는 이호철의 그 어떤 작품집에도 실리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소설이 왜 이호철 연보와 작품집에서 누락되었는지는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우선 작가 스스로 ‘태작’이라 생각하여 버린 작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거나 수준 미달의 작품이라고 하여 아예 목록에서 지워버린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9개월을 상회하는 기간 동안 신문매체에 비중 있게 연재한 소설을 작가가 버린 작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잃어버려 빠진 작품일 수도 있다. 자료 전문의 부재 혹은 소설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지워진 작품일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 소설이 연재된 『대한일보』는 경제적 사정과 시국의 흐름에 따라 발

행인과 제호가 바뀌고 필화를 당하는 등 굴곡을 겪다 1973년에 폐간되었는데, 이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자료가 소실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폐간 이후 자료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 자신은 물론 그 신문에 그와 같은 소설이 발표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호철 연보에 빠져 있는 이 소설은 앞으로 그의 작품목록에 추가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호철과 같이 작품의 수가 많은 작가일수록 서지사항은 불완전하기 마련이며, 그만큼 소실된 작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많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작품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온전한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확인과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작품연보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상해임시정부』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를 직접적인 제재로 삼아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의 한 지향점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소설은 이호철 역사소설의 한 특징과 존재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기회를 통해 먼저 『상해임시정부』의 서지 사항을 고찰한 다음, 이호철 역사소설 계보에서 『상해임시정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발굴 텍스트의 성격을 꼼꼼히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이호철 문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상해임시정부』의 서지 사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해임시정부』는 1967년 12월 1일부터 1968년 8월 14일까지 총 219회에 걸쳐 『대한일보』에 연재 발표되었다. 원고지 분량으로는 대략 2,200매가 넘는 분량의 장편소설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3층 신문자료실 내 마이크로필름실에 소장되어 있다.

신문 연재본 중 1968년 1월 1일자 27회는 ‘<서장> 상해에 오기까지 ㉗’과 ‘상해 ①’이라는 소제목이, 1968년 1월 4일자 28회는 ‘<서장> 상해에 오기까지 ㉘’과 ‘상해 ②’라는 소제목이 겹쳐 기재되는데, 앞의 소제목 ‘<서장> 상해에 오기까지’는 신문사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1967년 12월 30일자 26회 말미에 “이상이 이 소설을 시작하는 서장이다.”¹⁾라는 언급이 있으며, 1968년 1월 5일자 29회의 소제목은 ‘상해 ③’으로 되어 있어 앞의 소제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1968년 5월 21일자 146회의 소제목은 ‘대통령 ①’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본래 소제목인 ‘대통령탄핵과 무정부 ①’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즉 26회와 27회는 두 소제목이 반복 표기되었고, 146회는 소제목이 잘못 표기되었기에 총 연재횟수는 219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상해임시정부』는 총 11회분의 연재물이 누락되어 있다. 48, 87, 88,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회 등이 그것이다. 누락된 연재물의 소제목과 횟수는 ‘몇 갈래의 독립운동 ⑫’와 ‘대통령 ⑨~⑩’과 ‘국민대표회의 ③~⑩’인데, 이 11회분의 연재물은 국회도서관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의 연재 횟수는 219회로 최종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상해임시정부』는 총 15장의 소목차

1) 이호철, 『상해임시정부 (26)』, 『대한일보』, 1967.12.30.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연재 횟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제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순서	목차 내용	횟수	연재일자
1	<서장(序章)> 상해(上海)에 오기까지	1회-28회	1967.12.1.~1968.1.4
2	상해(上海)	29회-36회	1968.1.1.~1968.1.13
3	몇 갈래의 독립운동	37회-48회	1968.1.15.~1968.1.28
4	첫 모임	49회-56회	1968.1.29.~1968.2.6
5	망향(望鄕)	57회-64회	1968.2.7.~1968.2.15
6	복새관	65회-78회	1968.2.16.~1968.3.2
7	대통령(大統領)	79회-101회	1968.3.4.~1968.3.29
8	밀정(密偵)과 변절	102회-118회	1968.3.30.~1968.4.18
9	국민대표대회	119회-145회	1968.4.19.~1968.4.20
10	대통령탄핵과 무정부	146회-162회	1968.5.21.~1968.6.8
11	한국독립당	163회-171회	1968.6.10.~1968.6.19
12	의사(義士)들의 거사(擧事)	172회-190회	1968.6.20.~1968.7.11
13	안창호(安昌浩)의 회고(回顧)	191회-204회	1968.7.12.~1968.7.28
14	내외정세의 평가	205회-212회	1968.7.29.~1968.8.7
15	상해(上海)를 떠나서	213회-219회	1968.8.8.~1968.8.14

이상의 소목차에서 알 수 있듯, 『상해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이었던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부터 해체까지의 통치구조 변개양상을 임시정부의 자체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의 연관 속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구체적으로 앞부분에서는 국내외 각지에 산재하여 활동 중인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의 활약과 그것이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 및 개혁문제와 독립운동 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의정원 혹은 이승만과 이동휘·이승만과 안창호 등의 노선 갈등 내지 대립관계를 재현하는 한편, 구체적 국면에 개입된 개별 주체의 사소한 행동으로

임시정부의 난맥상과 침체상이 깊어지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Ⅲ. 이호철의 역사소설과 『상해임시정부』

이호철의 삶과 소설에서 분단의 역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연구가 작가의 체험과 관련하여 분단의식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작품세계는 ‘실향민 문학’이나 ‘분단 문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호철의 작품 연보를 보면, 뜻밖에도, 그가 역사소설의 창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가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호철이 역사소설 창작을 시도한 것은 1964년 4월 『문학춘추』에 『타인의 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기 졸업생」(1964), 「흰새벽」(1968), 「역리가」(1969) 등 「1기 졸업생」연작²⁾을 시작으로 이호철은 연작 장편 『까레이 우라』(1986) · 『개화와 척사』(1992) ·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2009)에 이르는 역사소설을 거듭 발표해 왔다. 이러한 창작 이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호철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소설이라는 서사 양식을 통해 지난 역사를 재현하는데 몰두해 왔다.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역사소설 창작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의 말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볼

2) 「1기 졸업생」연작은 단행본에 실리면서 수차례 제목이 변경된 작품이다. 1968년 8월과 1969년 4월 『월간중앙』에 발표되었던 「흰새벽」과 「역리가」는 1976년에 간행된 작품집 『이단자』에 수록되면서 각각 「1기 졸업생」2와 3으로 게재된다. 그러나 1981년 『월남한 사람들』에 수록되면서 「1기 졸업생」1-3은 각각 「흰새벽 ㄷ」, 「흰새벽 ㄱ」, 「흰새벽 ㄴ」으로 제목이 다시 바뀐다. 이후 1986년 『정통한국문학대계』12권에 와서는 「흰새벽 ㄱ」과 「흰새벽 ㄴ」이 각각 「1기 졸업생」2와 「1기 졸업생」3으로 변경되고, 1988년 『판문점-이호철 전집 1』에 수록되면서 「1기 졸업생」1-3이란 제목으로 최종 확정된다.

수 있다.

안 의사의 의거에다 초점을 맞추어 한일합방이 되기까지의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이도오 히로부미 및 그와 대비한 한국의 상황 등을 폭 넓게 본 것이 이 소설 『까레이 우라』이다.(…중략…)우리 정황이 당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두루두루 생각한 끝에 <역사상황소설>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³⁾

이 작품은 픽션이라는 무정형의 소설 형식을 빌린 분단백서(分斷白書)이며, 분단극복을 위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터잡이 처방전으로 쓰여졌다.

동서 냉전체제가 끝나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라과 사회주의가 줄줄이 무너진 오늘, 분단극복을 위한 내외여건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음에도, 어찌하여 정작 우리 남북 민중과 남북 권력 당사자간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전혀 없는가. 참으로 통절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오늘의 이 남북 분단체제가 나오게 된 연원(淵源)으로서의 지나간 이 나라 2백년의 역사를 거칠게나마 새삼 개괄해보며, 오늘의 이 분단질곡을 뚫어 낼 초미한 메시지로서 이 작품은 쓰여졌다.⁴⁾

위 인용문들은 이호철이 『까레이 우라』와 『개화와 척사』에서 작품의 창작의도를 내보인 대목이다. 두 가지 점이 뚜렷하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그 하나고, 그 속에서 통일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이 다른 하나다. 분단 현실에 바탕을 둔 일상과 역사에 대한 탐구는 이호철 소설세계를 관류하는 하나의 원칙이기도 한데, 이는 위와 같은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이것은 ‘역사를 대하는 작가의 진실성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급박한 의무감이 창작 동인의 하나’이며 ‘그

3) 이호철, 『작가의 말』, 『까레이 우라』, 한겨레, 1986, p.7-8.

4) 이호철, 『작가의 말』, 『개화와 척사』, 민족과 문학사, 1991, p.1.

것은 작가의 통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는 전영태의 언급과도 궤를 같이 한다.⁵⁾ 이 점에서 볼 때 이호철이 역사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그리고자 했던 것은 당대의 전사(前史)로서 과거의 역사이자, 통한의 현장이며, 동시에 올바른 통일의 탐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호철의 역사소설도 앞에서 언급한 분단 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호철의 역사소설은 현재의 전사로서 19세기 말과 식민지 역사를 근본 뿌리로 삼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분단 현실을 재인식하는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가는 이들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근대사를 통찰하고, 그 속에서 분단의 원인과 분단 극복의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식민지 역사 현실에서 명멸한 인물간의 대화를 준거로 삼아 1965년 한일 협정 당시를 비판한 「1기 졸업생」, 연작부터, 2백 년 전 개화와 척사의 주역이었던 인물들 간의 대담을 통해서 분단의 원인과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개화와 척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입을 빌려 현재 한국의 분단 상황과 그에 대한 전망을 서술한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⁶⁾ 등의 작품은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호철이 발표한 이러한 역사소설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발견된다. 그것은 기존의 역사소설이 모두 현실 변화가 극심한 전환기에

5) 전영태, 「역사의 격류를 헤쳐 나가기」, 『개화와 척사』 작품 해설, 민족과 문학사, 1991, p.284.

6) “2000년의 오늘에 이승 나이로 135살이 되었을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승 어딘가에 앉아서 현 우리의 남북 관계를 내려다본다면 그이로서 대강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을까? 이 소설의 시작은 바로 이런 상정(想定)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1960년의 그 4·19 혁명 뒤에 미국 하와이에 망명해서 5년 뒤에 현지에서 91살에 세상 떠났던 그이 입장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의 정치사(史)와 남북 분단 63년이라는 이 민족의 통한(痛恨)의 아픔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이호철, 「작가, 이 글을 펴내며」,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 중앙북스, 2009, p.393.

창작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까레이 우라』는 군부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불만이 들끓어 올랐던 국면에, 『개화와 척사』와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은 세계정세와 국내 정치가 각각 크게 변모하는 시점에 발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기 졸업생』 연작이 발표된 196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함께 식민지 역사 청산 문제로 우리 사회가 격랑에 휩싸이던 시기였다. 『1기 졸업생』 연작은 이러한 한일협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씌어진 역사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왜 그런가?

주지하듯 이 작품이 발표된 196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면서 반공주의가 최종 심급으로 작동하던 시기였다.⁸⁾ 이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대다수 작가들의 자발적인 검열 수단이 되었고, 작가들의 창작과 상상력 또한 상당한 제약과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것은 한일협정 문제가 이 시기 문학 작품에서 직접적인 제재로 활용된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⁹⁾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호철이 한일협정 전후의 혼란한 세대와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역사소

7) 『1기 졸업생』 연작의 성격에 대해서는 류동규, 『이호철의 역사소설과 식민지 역사의 재현』, 『국어교육연구』55집, 국어교육학회, 2014, pp.375-398 참조.

8) 1960년대 중반은 군사정권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방침(1961.5.18.)이 공포된 이후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반공법(1961.7)과 국가보안법의 강화 개정(1962.9.12.) 등이 재정비되고, 군사정권 주도 하의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일체의 문학적 제재와 표현이 규제·제약을 받던 시기이었다. 1964년 말 선우회가 언론 파동으로 구속된 사건이나 1965년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은 이런 당대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9) 『1기 졸업생』 연작 이외에 한일국교 회담에 대한 반응으로 씌어진 작품으로는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연작이 있다. 최인훈은 한일국교 파동 이후 문학의 형식을 파괴하면서도 온몸으로 부딪혀야 할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화 의식』, 『길에 대한 명상』, 솔과학, 2005, p.25.

설의 알레고리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호철에게 역사소설은 단순한 과거 재현을 넘어 분단 역사와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문학적 대응의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그에게 역사소설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하겠다. 또한 역사적으로 전환기적 상황마다 발표된 이들 작품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의 공시적 특징과 변모양상을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해임시정부』 역시 이러한 이호철 문학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1기 졸업생』 연작과 이후 발표한 『까레이 우라』와 『개화와 척사』,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 등을 연계하며 같은 계열의 문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초기와 후기 역사소설을 매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기 졸업생』 연작과 『개화와 척사』와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 등이 이승과 저승, 과거와 현재를 이원적 시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상해임시정부』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원적 시공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비된다.¹⁰⁾

또한 『상해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상해시대(1919-1932)에 활동했던 많은 명망가들의 경력과 활동 및 분열상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기록을 넘어서는 상상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작가의 다른 역사소설들과 상이함을 보인다. 『상해임시정부』의 경우, 실제 기록에 바탕하여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인물 창조가 더하여지면서 다른 작품들과는 크게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서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10) 이 유형에는 이호철 역사소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타인의 땅』과 역사상황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까레이 우라』 등이 포함된다.

텍스트 내에서 초점화자이자 초점화 대상으로 설정된 차철준이 식민지 역사에 투신하여 벌이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김구와 안창호를 초점으로 임정 각 세력의 갈등과 헤게모니 투쟁을 담은 이야기이다.

15장의 소목차로 구성된 작품에서 1-2, 4, 8장은 구한말 의병항쟁에 가담한 차철준이 상해로 건너와서 김구를 만나고 독립 운동에 가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반면 나머지 장들은 임정의 운영과 통치구조 변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기호파와 관서파의 대립, 국민대표회의와 개조파의 정국 쇄신운동, 대통령 탄핵, 민족유일당 운동, 의사들의 거사, 상해 임시정부 해체 등 역사적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면서 그 역사적 현장에 안창호와 김구가 참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을 쓰기에 앞서 작가가 어떠한 사서를 참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임시정부에 관한 각종 문서를 비롯하여 개항기 문인들의 다양한 회고록이나 전기류 등 방대한 자료를 독과 내지 참고했음은 분명해 보인다.¹¹⁾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¹²⁾ 이호철의 개인적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11) 이 같은 측면에서 『개화와 척사』에 실린 ‘작가의 말’(p.5)을 주목할 수 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쓰는데 있어 참고 내지 의거했다고 언급한 사료적 전거는 다음과 같다. 서대숙, 『김일성』; 김영자, 『한국 내셔널리즘 연구』; 강재언, 『조선의 양화와 개화』; 이완재, 『초기 개화사상 연구』; 최동희, 『서학에 대한 한국 실학의 반응』; 조광,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심산사상연구회, 『김창숙 문존』; 송건호, 『한국현대인문사론』; 강만길, 『조소앙』; 김세일, 『홍범도』; 한국일보사 편, 『독립운동가 열전』; 정원옥, 『양세봉』; 이연복, 『조성환』.

12) 임시정부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3편의 논문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고, 1969년 동아일보사의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에 논문 5편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연구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pp.17-8과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3 참조.

장편 『상해임시정부』는 이와 같이 지난 세기 우리의 독립 운동사를 다시 더듬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분단 역사와 통일의 의미를 탐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호철 역사소설의 한 특징과 존재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작품의 서사가 어떻게 작가의식으로 구현되는 지를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IV. 『상해임시정부』에 드러난 작가의식

1. 민족독립운동의 역사적 재현

지금까지 역사적 인물로서의 한국 독립운동가나 개별 독립운동단체를 소설화한 작품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처럼 임시정부 참여자 전반을 소설화한 작품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해임시정부』는 작가의 다른 역사소설과 마찬가지로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가 동시대를 인식하면서 분단의 원인을 탐색하고 있는 시각의 역사적인 확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민족독립 운동사를 재현하는 데 있어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며 역사를 재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서술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동원된 방식으로는 역사적 사료, 공기록, 신문기사, 회고록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 재현 방식은 특히 공적 역사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나는데, 몇 사례만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선두에 선 것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였다. 이 신문은 『인민의

향(人民意向)』이라는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이 명확한 논지를 폈다.(5회)

이상 공기록(公記錄)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지만, 일본에 대한 정면항쟁은 지방 의병운동뿐이었던 것이다.(10회)

공기록(公記錄)에 의하건대 노령 의병의 국내침투작전은 9월에도 계속되었다. 9월 3일 함북 명천(明川)을 2백 명의 의병이 기습하였고 10월에도 5백 50명이 기습하였다.(17회)

이에 대하여 3월 5일에는 조완구(趙玩九), 윤기섭(尹琦燮) 등 4, 5명의 연서(連署)로써 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93회)

이 무렵의 사정을 김홍일 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37회)

한편 8월에 들어서는 강석훈(姜錫勳), 이한호(李漢浩), 박태열(朴泰烈), 김성득(金成得), 방달성(方達成), 박진(朴眞), 정유린(鄭有鱗), 박관해(朴寬海), 최찬학(崔燦學), 장덕진(張德鎭) 등 열 명의 서명으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내었다.(140회)

즉 25년 3월 11일에는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서』라는 것을 내놓고 이승만을 면직시킴 사실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57회)

6월 30일자로 휴간되었던 임시정부 공보(公報) 55호는 새 조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있었다.(218회)

이상의 예처럼 작품 속에는 국내 의병운동과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역사의 변화와 그 변화가 동반하는 여러 사건과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실제 기록에 충실하여 역사

를 재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작가는 구한말 의병항쟁을 비롯하여 노령의병의 국내진공작전, 범미주 항일단체의 통합과 분열, 안창호의 민족계발운동, 이승만과 이동휘의 대립, 안창호와 이승만의 갈등, 이백만 루블 유용사건, 자유시 사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 국민대표회의와 임정의 대립, 고려공산당의 내분, 이승만의 외교노선 실패와 탄핵, 유일당 성립, 김구의 테러 비밀단체 조직, 이봉창·윤봉길의 거사, 안창호의 구속, 내외정세의 급변과 상해 시대 종료 등등 당시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공적 담론에 의거하여 되살리는 서술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이호철이 역사적 사실에 얼마나 충실하고자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의 재현은 일차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도모하고 그들의 호기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당대 독자들의 민족독립 운동사에 대한 인식 폭을 넓혀 줌으로써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지향점을 탐구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일종의 주석 같은 이 공적 담론들은 소설 속 사건의 토대를 이루는 역사적 부분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 방식은 작가가 작품 내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동시에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담론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용케 하는 서사전략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상해임시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실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서사 진행 속에서 화자의 언술로 때로는 등장인물의 대화로 구체화된다. 『상해임시정부』가 재현하는 비판적 담론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도자들의 고질적인 종파싸움과 파벌싸움에 의해 분열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의 동인이 소위 지도자들의 사욕에 기인한 자리다툼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① (정부와 여는 절대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고압적인 소리인가. 정부 전체와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일 대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65회)

② “저는 그런 점은 무식합니다마는 이 점만은 분명히 해 두십시오. 국가나 민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하다면야 어째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요. 전제(前提)만은 분명히 해 둡시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옵시다. 어느 제삼자의 지도나 명령에 의존하는 것은 우선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외다. 도대체 총리를 맡은 분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옵시다.”(90회)

③ “잘못 생각하는 것이면 그 생각을 고쳐 주기만 하면 되어요. 문제는 주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선생님도 말씀 하셨지만, 더 근본문제옵시다. 험하게 얘기해, 그 사람은,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자기 개인 욕심의 이용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행세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옵시다. 이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입에서 어째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98회)

①은 이승만의 독선과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은 이동휘, 안창호와 함께 ‘삼각내각(三脚內閣)’으로 불린 초기 통합임정을 대표하는 중심인물이었지만, 임시정부 초기의 분열과 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임정 출범 이후 독립운동방식을 둘러싸고 임정지도자들과 이견을 드러냈고, 임정지도자간의 노선갈등 해소에 실패하며 임시정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1921년 말 국무총리 이동휘의 사임에 이어 1925년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유동열, 김규식, 안창호 등이 연이어 사임하게 되면서 통합임시정부는 붕괴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 이처럼 통합 임시정부와 이

승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임시정부의 위상에 큰 흠집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였는데, 소설 속 서술자는 이승만의 이러한 고압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담론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태도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전횡적(專橫的) 인품”(44회)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②는 공산주의 혁명을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삼자는 국무총리 이동휘의 말에 김구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주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민족독립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임시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즉 지역의 기반과 독립노선의 차이에서 오는 종파싸움과 파벌싸움은 내부 분열만을 가중시킨다는 사실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옳다는 고집불통의 태도를 버리고 모두가 순수한 태도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작가의 이 같은 의식은 “원칙, 중심을 따질 것 없어 우리 모두는 울혈(鬱血)로써 모여 들어야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라 잃은 울혈이 서격이는 것 없이 순수하게 모여야 한다는 말이외다.”(72회)라는 김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안창호가 이승만을 만나고 돌아온 후 자신의 심경을 이동녕에게 토로하는 부분이다. ③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안창호의 심정은 실망과 환멸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분노의 중심에는 독립운동을 명예욕과 출세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승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부정 의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속에는 “지나치게 자기본위이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95회)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초보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일”(97회)이 될 것이

13) 반병률, 『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전쟁-급진론과 완진론』,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제5호, 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pp.101-128 참조.

라는 비판적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임시정부가 쇠락해 간 정치현실을 꼬집는 일면이자 임정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독립운동의 순수성이나 당대 민중들의 삶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를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라 할 것이다.

한편 작가는 임정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김구의 역사의식을 통해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면모에 대해 언술하는데, 이것은 당시 임정 지도자들에게 대한 비판적 잣대로 작용한다.

“난 솔직하게 말해서 이름 없이 이곳저곳의 산하(山河)에서 조국을 그리고 조국을 되찾으려 뿔뿔이 안간힘을 쓰는 필부(匹夫)들이 진짜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는 정부 형식이건 당 형식이건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요. 그런 이름 없는 필부들의 산발적인 싸움이야말로 참으로 왜놈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내심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싸움일 것이요. 그들과의 연줄을 가져야해요. 그들이 참으로 우리 운동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장 꺾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적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독립운동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이오(…중략…)내 이 말은 현재의 우리 정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74회)

이처럼 이호철은 우리의 항일 독립 운동사를 역사적 인물의 분투만이 아닌 일반 민중의 투쟁사의 관점에서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일반 민중이 독립운동가가 되어가는 배경과 과정까지를 되살려 역사서술의 폭을 확대시킨다. 『상해임시정부』가 지니는 문제성은 임정 지도자들의 갈등과 분열상 속에서 드러나는 도의나 신념, 인간적인 고민의 흔적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민지 현실이란 구체적인 공간을 살아가는 다양한 민중

들의 삶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한 데에 있다.

2. 민중의 역사 재현

주지하듯이, 130여 년 전 동학운동과 구한말 의병운동의 실패는 민중의 식의 쇠퇴와 함께 이 땅에 외세에 의한 식민지화가 본격화되는 동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식민지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산골의 무지한 농민에게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겨 놓았다. 『상해임시정부』는 이러한 민중적 현실에 작용하는 식민지의 상처를 더듬고 그 비극적 일면을 재현하면서, 조선의 민중으로 표상된 사람들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실제로 이 작품은 영웅 중심의 역사에서 봉인된 수많은 민중들의 역사를 다시 호명해내어 그들의 일상적 삶을 드러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가령, 군대 해산 후 의병으로 떠돌다 일본 헌병에 잡혀 죽음을 당하는 늙은 장정부터 임정의 애국자금으로 잇속을 챙기려다 최후를 맞는 김여훈, 상해에서 금품을 노린 김여훈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서삼봉, 한국인이면서 중국인 행세를 하는 정체불명의 송철구, 일본 영사관의 밀정으로 활동하는 황학선, 황학선에 매수된 깡패두목 장대지, 이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정 요원 설국화 등의 이야기가 겹쳐져 서술되고 있다. 물론 작품 속에는 이들 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민중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러한 인간 군상들의 인물 형상화는 이질적이고 균열적인 식민지하 역사적 상황의 단면을 보다 다채롭게 읽어낼 수 있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 역사적인 내용들은 굵직한 독립운동이나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재현된 현실에 대한 해석의 지향점은 식민지 인간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로 풍

자와 비판이다.

식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소곤대는 소리로 잡담을 나누는데 대개가 욕설에 험담뿐이었다.

“얼마 전에 내무부 참사 정제형(鄭濟亨) 씨와 정부 특과원 이동우(李東愚) 씨가 다시 상해로 돌아왔는데, 본국 사정은 말이 아닌 모양이더군.”

“그럴 테지. 애국금을 모집하려 들어갔던 자들 태반이 돈을 잘라 먹었다고 하지 않던가. 아예 그럴 바엔 왜놈들에 붙어서 본국에 주저앉을 것이지, 뭐 찾아 먹겠다고 여기까지 되돌아오는 심보는 뭘까.”

“알 수 없지. 어쨌든 다 썩었어, 다 썩어. 입 끝으로만 애국, 나라를 운운하지, 제 뱃속부터 채우려드니, 말이 될 것이 뭐요. 얼마 전에는 공동조계(共同租界) 지역의 밥이나 근근히 먹는 장사치들이 적지 않은 돈을 모아 들였는데, 그 돈의 행방이 확실하지 않다지 않는가.”(70회)

이처럼 작가는 눈에 띄지 않는 민중의 언술을 곳곳에 서술함으로써 공적인 역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것들을 보여주려 한다. 이는 작가가 역사를 얼마나 민중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상해임시정부』에 등장하는 이들 민중 가운데 중심인물은 차철준이다. 이 점에서 『상해임시정부』는 구한말부터 192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중핵인물 차철준의 모험과 투쟁을 다룬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안창호와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서사가 실제 기록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며 역사를 재구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차철준 서사의 경우는 작품 속 스토리가 허구임을 전제로 역사 기록을 넘어서는 역사적 상상력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 과정에 일정한 차이가 보인다. 소설에서 차철준은 1895년 강원도 출신으로 1910년 경술국

치 직후 가출하여 2-3년간 의병으로 활약하다 1919년 4월에 중국 상해로 망명하는 인물로 서술된다. 그리고 상해에 오기까지 그가 보여주는 행로는 당대 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를 충실하게 따라간다. 이는 그의 행로가 ‘가출 후 의병 해산을 명한 지역 양반 척살 → 의병장 강기동과 채용언 휘하의 의병으로 활동 → 채용언의 유지를 받들어 노령지역으로 월경 → 『대동공보』 발행인 최봉준의 기선에 잠시 몸을 의탁 → 간도를 거쳐 안동으로 이동’으로 전개되어 가는 상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차철준의 인생 행로에 대한 서사적 재현은 그의 삶이 역사적 시공간에 제약된다는 점과 함께 항일 의병운동세력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과정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차철준은 안동의 한 여관에서 우연히 김구와 만나는데, 이 만남은 차철준의 이후 행로에 있어 의미심장한 전환점이 된다.

“선생님, 저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를 도로 찾을 날이 있을는지요? 노령 땅에서 겪어 보아서는 하부지세월 같이 생각되는데.”

“어째 그런 생각을 먹었나?”

“최봉준이라는 사람도 겪어보니 바깥으로는 꽤 애국자 행세를 하였지만 제 돈벌이 밖에는 생각 않더군요. 그 밖에 이름 있는 지사(志士)들도 대대 그런 식으로 뜨뜨미지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

김구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어찌겠나? 날 따라 서겠나?”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28회)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차철준을 상해로 이끄는 인물이 김구라는 설정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처럼 두 사람이 동일한 역사적 시공간에 진입하

는 방식으로 차철준의 서사와 김구의 서사는 이 지점에서 결합된다. 김구와의 만남 이후 차철준의 서사는 민족 독립 운동에 투신하여 벌이는 분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철준은 속물적 욕망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동포를 죽이고 급기야 임정의 애국자금까지 챙기려는 김여훈을 처단하는 한편, 밀정이 된 황학수로부터 밀정 제의를 받아 참석한 모임 장소에 폭탄을 투척하여 그 잔당을 일망타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삽화적 구성에 드러나는 차철준에 대한 묘사는 우리의 독립운동에 그와 같은 일반민중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하여 구한말부터 1920년대까지 민족독립운동에 투신한 한 민중의 삶을 온전히 복원해 내고자 한다. 하지만 작가가 재현해 낸 차철준이라는 인물은 강철 같은 신념과 정신으로 무장된 영웅이나 열사와는 거리가 멀다. 소설에 형상화된 차철준은 오히려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화하는 단계의 주체상에 가깝다. 이를 테면 상해에서 서삼봉을 죽인 김여훈에게 먼저 몸을 의탁하는 과정이나 독립운동 참여 과정 속에서 드러난 고민의 흔적 등을 고려한다면 작가가 형상화하고 싶은 인물을 쉽게 알 수 있다.

독립운동, 독립운동, 누구나가 쉽게 지껄이는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 몇 만 리를 바다로 격해있는 미국 땅에서 벌이고 있는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차철준으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29회)

그것은 위대하고 강하고 신념이 가득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는 주체성을 가진, 식민지 조선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인물형상화 방식은 작가의 철저한 기획 하에

드러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상해임시정부』는 변화하는 현실에 흔들리는 주체성을 가진 한 인물의 행로를 재현의 대상으로 삼아 식민지 기층 민중의 세대와 운명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민중사와도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이호철의 작가의식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실된 작품의 발굴과 이를 통한 재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필자가 발굴한 『상해임시정부』는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대한신문』에 연재 발표된 장편으로, 상해 시대 임시 정부 요인의 활동과 분열상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에는 초기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문제로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함께 식민지 역사 청산 문제와 분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한 시점에 창작된 이 작품은 작가의 당시 역사관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상해임시정부』의 서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김구와 안창호를 초점으로 한 역사적 인물의 독립 운동사였고, 다른 하나는 차철준으로 대표되는 기층 민중의 독립 운동을 엿볼 수 있었다. 서술과정에 투입된 작가의식을 통해 민족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재현과 민중의 역사 재현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 소설이 공적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에선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을 동원해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며 총체적인 조망으로서 비판적인 담론을 펼치는 반면에 역사 기록을 넘어서는 상상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에선 공적인 역사에 간혀 있던 일반 민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상해임시정부』는 이호철 역사소설의 계보를 견지하면서도 의병 집단의 성격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의 내면과 행로의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영웅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벗어나는 성과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소설을 관념적 역사소설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심인물인 차철준의 여로가 작품 중반부에서 소멸한다는 점 외에 느슨하고 산만한 서술, 평면적인 서사 등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글은 이호철의 작품 연보에서 누락되었던 『상해임시정부』를 발굴하여 그 문학적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룬 『상해임시정부』 외에 이호철의 다른 역사소설에 대한 탐색은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서 2010년대로 이어지는 작가의 역사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고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가 선결되어야만 이호철 역사소설의 위상 또한 정확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호철, 『상해임시정부』219회, 『대한일보』, 1967.12.1.-1968.8.14.

2. 논문 및 단행본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pp.17-18.

류동규, 『이호철의 역사소설과 식민지 역사의 재현』, 『국어교육연구』제55집, 국어교

- 육학회, 2014.6, pp.375-398.
- 반명률, 『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전쟁-급진론과 완진론』, 『동양정치사상사』제5권 제5호, 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pp.101-128.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3.
- 이호철, 『까레이 우라』, 한겨레, 1986, pp.7-8.
- _____, 『개화와 척사』, 민족과 문학사, 1991, p.1.
- _____, 『별들 너머 이쪽과 저쪽』, 중앙북스, 2009, p.393.
- 전영태, 『역사의 격류를 헤쳐 나가기』, 『개화와 척사』, 민족과 문학사, 1991, p.284.
-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대한 명상』, 솔과학, 2005, p.25.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 Recently Found Novel of Lee Ho-cheol

Hwang, Tae-muk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build through it from first discovery of the lost works and to identify correctly the first artist to be conscious of Lee Ho-cheol. I've been a 『*The Korean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ddressed the colonial history excavations Spin problem of objective reality rather than a change to conform to focus on a serious quest series sorrow or displaced by the division of work published in from 1967 to 1968. In the 1960s,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of the initial Park Chung-hee government campaign against the normalization of students with problems with colonial history emerge as the topic of liquidation problems and division. Because, Lee Ho-cheol, it a provisional government reflecting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this silver 『*The Korean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injuries.

The novel of the tex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epic structure steps. One is focuses on historical figures, a independent movement of history, the other one in independence movement focuses on a grassroots public history. Descriptive process broke into ethnic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all of a writer to read author who appears at the Historical reenactment of historical reenactments and grassroots awareness of history. These reviews we have taken The previous one epic be the set of various types of materials in the distance is relatively objective is to rebuild history, but the way through metaphor and metonymy to reproduce the history of bypasses.

Key Word : Lee Ho-cheol, A Recently Found Novel,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Historical Novel, Representation of Colonial History,

Representation of People History

황태목

소속 :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 khtm@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